

교회 및 지역 소식

김 호직 박사 추모 좌담회

참석자 : 한 인상 형제 김 정숙 자매
박 재암 형제 김 영숙 자매
정 윤 형제 (사회)고 원용 형제
서 원 형제 정 기만 형제

일자 : 1987년 7월 4일

장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관리 본부 회의실



김 호직 박사

1905년 4월 16일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4남매중 막내로 태어남. 1917년 현 서울 농대 전신인 수원 고농에 입학하여 1923년에 수석으로 졸업. 그 후 영어 교사, 일본 동북제대에 유학. 귀국 후 수원 농사 시험장 역임. 1949년 11월에 미국 동부의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에 생물학 박사 학위 공부를 위해 한국을 떠남. 1951년 7월 29일 미국 유학 중에 침례받음. 1952년에 귀국하여 여러 대학 교단에서 일하시다가 문교부 차관을 거쳐 서울시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 재직시 회의 석상에서 졸도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1959년 8월 31일에 운명함.

고 원용 :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에 소개된 지도 근 40년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코 짧지 않은 연륜을 쌓아 가고 있는 한국에서의 교회 역사를 정리하여 새로이 침례받는 회원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모아 보자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의 초기 교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던 김 호직 박사의 추도일이 속한 8월에 그분이 개종하신 이야기와 교회에 끼친 공헌 등과 아울러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기 시작하던 초기의 교회 상황을 알아보는 것도 뜻이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오늘 김 박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가까이 하셨던 여러분과 가족을 모시고 그분의 추모 좌담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며칠 전 서울 성전에서 김 박사님의 인봉 의식이 있어서 이 좌담회에 시사성을 더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 정숙 자매님께서 박사의 개인적인 약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평안북도 벽동군에서 출생—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

김 정숙 : 아버님은 1905년 4월 16일 평북 벽동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김 경하씨) 슬하의 2남 2녀 중 막내이셨고, 1917년, 3월 고향을 떠나 수원고농(서울 농대 전신)에 입학, 1923년에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김 영숙 : 그 후 전북 신흥고보 영어 교사를 하시다가 일본 동북 제대에 유학하였고, 귀국하신 후 수원 농사 시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 인상 : 이 시대가 중요한 시기인데, 바로 이 시절에 사모님 박 필금 여사와 연애를 하시던 때였죠.

김 정숙 : 결혼하시어 3남 2녀를 두셨는데 1934년 세째 아들을 잃어 버리신 후 심경이 변하셔서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고, 장로직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숙명여전(지금의 숙명여대) 교장으로 계시다가 1949년 11월에 도미하셨습니다. 1951년 7월 29일에 미국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1952년 귀국하신 후 부산 수산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고 원용 : 그러니까 6·25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가셨다가 전쟁 중에 귀국하셨군요.

김 정숙 : 그때 아버님은 식구들이 모두 죽은 줄 알고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전쟁 중에 귀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미군 군용기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환도 후 서울에 오셔서 직장을 가졌는데...

박 재암 : 문교부 차관을 지내신 때가 그때인가요?

김 영숙 : 환도 후 연세대 생화학 교수로 계셨고, 그 후 서울 대학원 교수를 맡으셨죠.

김 정숙 : 그 후 문교부 차관에 임명되었고, 그 직을 그만두신 후 홍익 대학 학장을 거쳐 건국 대학교에 가서 축산 대학을 설립, 초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서울시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러한 기간 중에 유네스코 국제 식량 기구(FAO) 한국 대표, 한글 학회장, 학술원 회원, 한국 생물학 회장 등 여러 사회적 직책을 맡으셨죠.

한 인상 : 그때 교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김 박사는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게 참 불행한 일이었죠.

김 정숙 : 네, 그때 회의 도중 졸도하셨죠.

박 재암 : 그때 회의 내용이 고등학교 입학 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부금을 받고 입학할 허용하자는 측과 그것을 반대하는 측이 서로 격론을 벌이다가, 그 안을 반대하시던 김 박사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이죠.

한 인상 :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셨죠.

김 정숙 : 쓰러지시자 바로 세브란스 병원(구 서울역앞)에서 3일간 입원하셨지만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김 영숙 : 교육 위원회에서 쓰러졌을 때 제가 가니까 손을 잡으시고, “모든 것은 의사의 말에 순종하라. 어머니를 안심시켜라.”고 말씀을 하신 후 혼수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박 재암 : 장례식은 건국 대학교에서 지방부장이었던 브라운 장로가 조사를 읽었고, 홍 병식 형제가 통역을 맡았었죠.

한 인상 : 그리고 교회 형제들이 운구를 맡아 낙원동에서 동대문까지 걸었고, 망우리에서 묘지까지 다시 운구를 하였죠.

고 원용 : 이야기가 돌아가신 때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

교회 및 지역 소식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된 과정을 살펴볼까요?

“내 양을 먹이라”-귀국

김 정숙 : 교회 신문에 기사가 났지만(처치 뉴스, 1983년 9월 18일자), 아버님께서 생전에 개종 동기를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는 같은 반 급우가 30세에 불과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성실, 친절과 품위에 감동을 받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오? 그렇다면 어느 교회에 나가시오?”라고 묻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죠. 즉 한 학생의 몸가짐이 아버님을 말일성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한 인상 : 얼마 전 신권회 시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의 공과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침례받은 장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받은 사스케하나강이었는데, 김 박사님이 들려주신 간증을 의하면, 침례를 받고 물 속에서 나올 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세 번 들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쟁 중에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 정숙 : 우드 장로가 침례를 주었고, 1951년 8월 5일 보만 장로의 안수로 집사 직분을, 8월 26일 다이 장로의 안수로 제사 직분을 받았읍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V₁₂를 주제로 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이듬해에 귀국하시게 되었죠. 장로 신권은 1953년 5월 17일에 70인이신 메드센 장로에 의해 성립되었읍니다.

고 원용 : 김 박사님이 교회 회원으로 한국에 돌아오신 후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죠. 김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주시겠습니까?

피난시절 부산에서의 예배

박 재암 : 아무래도 제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인 것 같은데...



1952년 부산 피난 시절의 모임 김 호직 박사가 말씀하고 있다.

한 인상 형제

1957년 4월 20일에 침례받았으며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물론경을 번역하였음, 지방부장, 선교부장단 보좌를 거쳐 부산 선교부 개설과 함께 제1대 부산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함. 귀환 후 한국 지역대표(7년)로 봉사함. 현재 불광 와드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음. 부인이 규인 자매와의 사이에 3남 2녀를 두고 있음.



“제가 ‘모자가 너무 큰데요.’라고 하면 ‘이 사람아. 모자가 크다고 불평하면 어떡해. 머리가 크면 될 것 아니요.’라고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한 인상 : 아니죠. 딸들이 먼저 만났죠.(일동 웃음)

박 재암 : 물론 딸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1952년 여름으로 기억되는 데 당시 부산역 앞에 있는 공회당이라는 큰 건물에서 미군들이 각 교회별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해군에 있으면서 일요일마다 영어를 배우려고 장로교 모임에 나갔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 점검이 있어서 오전에 못 가고 오후에 갔더니 물론 교회라는 교회가 집회를 보는데 들어가 보니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간증회였던 모양인지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 전에 장로교 모임에서 목사가 어려운 영어로 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알아 듣기 쉽고 호감이 갔죠. 그때부터 장로교 모임 대신 물론 모임에 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두세 번 나간 뒤에 김 박사님을 만났죠. 당시 그랜트 히튼 형제가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김 박사님이 통역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한 마디 한 마디씩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히튼 형제가 2~30분 동안 즉 가르친 후 김 박사님이 다시 설명을 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히튼 형제는 북극동 선교부 선교부장이 되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김 박사님이 서울로 올라 가셨죠. 그 후 55, 56년엔 부산에 예배당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번 내려오셨고, 그때마다 국 영길, 최 재신 형제와 함께 박사님을 모시고 다녔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북덕방을 들렀는데 아주 복잡한 서류를 그 자리에서 직접 작성하시던 모습입니다.

고 원용 : 그게 지금 서대신동 교회 이전 이야기인가요?

박 재암 : 그럼요. 부산에서는 미군 교회 이후 국 영길 형제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최 재신 형제 집을 지어 거기에서 예배를 보았고, 선교사가 내려오기 위한 준비로서 교회 건물을 처음 얻은 게 검정다리 있는 데였고, 그 건물을 구하기 위하여 박사님이 내려오신 거죠.

교회 및 지역 소식



박재암 형제
1955년 3월 20일에 침례받았으며 서울 동지방부장, 신교부장단 보좌(8년간), 5와드 감독,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를 거쳐 1982년 11월 영동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하다가 87년 6월에 해임됨. 현재 서울 성전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음. 부인 최순용 자매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음.

“그분은 교회에 오시면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경전을 펴셨어요. 그리고 경전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셨어요.”

고원용: 그때 김 박사님의 교회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방부장이었나요?

김정숙: 그때는 아무런 직함도 없었죠. 그냥 교사예요.

박재암: 맞아요, 한국 교회가 아직 정식으로 조직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고원용: 박 형제님은 언제 침례받았습니까?

박재암: 1952년부터 교회에 나왔으나 3년간 구도자로 있다가 1955년 3월 20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원용: 박 형제님은 박사님이 부산에 계셨을 때와 그 후 서울로 올라가신 후 부산에 내려오실 때마다 만나셨군요.

박재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1957년 서울에 올라가서 유락동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당시 당신께서 복음 교리반 교사이셨는데 저보고 대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던 반인데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 당시 머물던 친구 집에서 일주일 내내 그 공과판 준비하여 내가 가르치니 오죽 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 공과을 7, 8개월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죠.

고원용: 한 형제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텐데요.

한인상: 저보다 정 윤 형제님이 교회에 먼저 나왔고, 침례도 먼저 받았어요.

정 윤: 글썄요.

한인상: 제가 1956년에 교회에 와서 57년 4월에 침례받았어요.

정 윤: 저는 1956년 1월에와서 57년 2월에 침례 받았죠.

한인상: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이시죠. 그리고 김 박사님도 먼저 보셨을 테니까 먼저 이야기하시죠.

고원용: 그럼 정 형제님부터...

정 윤: 제가 처음 교회에 온 것은 오 회영, 홍 병식 형제가 영어 공부하러 나오는 데 따라 나온 것입니다. 당시 저는 침례 교회에 다니고 있었죠. 처음 나갔을 때가 1956년 1월

19일인가인데 상향회 시간이었어요.

한인상: 한국인으로서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최초의 장로 신권 소유자

한인상: 그때 장소가 어디였죠?

정 윤: 미8군이었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 저보다 크고, 영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무지 알아 듣지도 못했지만, 어쩐지 모두가 친절하고, 악수도 전부 해주고 하여 그 재미로 따라 다녔죠. 그리고 빨리 한국 사람 교회가 있어서 알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도 하곤 했었죠. 그 후 한국 사람끼리 처음으로 예배 본 것은 1956년 6월 3일이에요. 옛날 서울 고등학교 밴드부실을 빌어서 첫 예배를 보았죠.

김정숙: 첫 간증회였죠. 많은 사람들이 울었죠.

한인상: 그때 약 30명이 모였죠.

정 윤: 네, 박사님이 지부장을 맡으셨고, 그 후 초대 한국 지방부장이 되셨고, 역시 장로 신권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받아 1호 장로가 되셨죠. 그리고 파우엘 데튼 장로가 첫 공식 선교사로 한국에 왔었죠. 그 후 가을 무렵에 카 장로가 왔죠. 건물을 얻으려고 여기 저기 다니다가 유락동 건물을 얻었고 그것이 한국 성도를 위한 첫 교회 건물이었죠. 카 장로가 늘 망치 들고 다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박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Sincerely”(진실하게)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연령으로 보면 거리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밥도 자주 얻어 먹고...

한인상: 그렇다고 호락호락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젊은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하셨습니다. 교회의 표준에 대해서는 분명하셨죠.



1957년 홍익대 학장 시절의 김 박사

교회 및 지역 소식



정 윤 형제
1957년 2월 2일에 침례받았으며 상호향상회 교사, 지부장, 지방부 평의원,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영동 와드 감독을 거쳐 서울 영동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다가 87년 6월에 해임됨. 고 김호직 박사의 사위이기도함. 부인 김 영숙 자매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음.

“박사님은 공과 시간에 콩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콩박사’라고 불렸죠. 콩을 연구하신 것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콩밥을 먹는 것에 착안하신 것입니다.”

김 정숙 : 교회 형제들이 개인적으로 집에 놀러 오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셨어요.

김 영숙 : 교회 형제들이 집에 오면 반드시 문을 열어 놓고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고 원용 : 정 형제님은 김 박사님의 사위가 되셨는데 그렇게 업하신 분 밑에서 문을 열어 놓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위가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좀 해주시죠. (웃음)

정 윤 : 그 당시에는 사위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인상 : 당시 정 형제는 배재 중학에 다니고 있었죠.

정 윤 : 김 영숙 자매와의 관계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사춘기 때의 첫 사랑으로 느낀 대상이었죠. 그러나 당시 아무래도 내가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잊으려고 했고, 안 불려고 애를 썼죠.

고 원용 : 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정 윤 : 그때는 겨우 중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학년 중간 고사 시험을 볼때 그 시험을 망쳐 버렸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녀 얼굴이 아른아른하여 답안지를 쓸 수 있어야죠. (웃음) 나중엔 그걸 복구하느라고 아주 혼이 났어요.

김 정숙 :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네요.

정 윤 :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녀가 다 커서 노처녀가 되어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야기를 했죠.

고 원용 :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은 한참 후군요.

정 윤 : 1972년 12월 25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공과 시간에 콩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콩박사”라고 불렸죠. 콩을 연구하신 것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콩밥을 먹는 것에 착안하신 것입니다.

박 재암 : 또 재미난 사실은 1957년에 KBS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데 내용이 신권회 교재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다 아는데, 생물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셨읍니다.

고 원용 : 한 형제님께서 개인적인 관계와 아울러 그 분이 교회에 끼친 공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당시 성도들에게 끼친 영향

한 인상 : 먼저 연령에서 보면 그분이 미국에 가셨을 때 45세이셨읍니다. 이른바 만학도로서 도미하시어 학위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침례받으시고 공식적인 최초의 한국 성도로서, 귀국하셨을 때는 50대에 들어서는 연령이셨는데 당시 한국 성도들은 30, 40대는 없었고 20대도 아주 젊은 20대와 10대 후반의 연령층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와 20대만 있는 교회에 50대 지도자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리고 단지 연령 차이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었을 정도였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박사님이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소외감 같은 것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런 거리감없이 젊은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셨읍니다.

박사님이 복음 교리반 교사이셨고 제가 보조 교사였는데, 교사직을 제게 맡겨 놓고 계속 여행을 하셨읍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가셨을 때는 3주일씩 걸렸읍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가 너무 큰데요.”라고 하면, “이 사람아, 모자가 크다고 불평하면 어떡해. 머리가 크면 될 것 아니야.”라고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통역을 시키셨는데, 앤드루스 선교부장이 오셨을 때죠. 제가 못한다고 하니 그냥 하라고 하셨는데, 막힌 단어가 “Enthusiasm”이었읍니다. 그래 제가 몰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박사님이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통역하라는 뜻인 줄만 알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던 적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이 땅에 맨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도



1956년 김 박사와 그의 아내 박 필근 여사

교회 및 지역 소식

박사님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선교사를 초청하고 보증을 서셨고, 정부에서도 김 박사이었기 때문에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재단 설립에 관해서도 박사님이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허가를 심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개신교의 독실한 신자들이었고, 물론을 이단으로 여기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도 김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 원용: 그 당시에 몰몬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까?

일 동: (큰소리로) 그 당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심했는데요.

고 원용: 질문 한번 잘못해서 큰 박해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교회들이 몰몬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박 재암: 그럼요. 알았지요.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했는 걸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재단 설립

한 인상: 재단 설립 허가를 얻으시는 데, 카 장로를 시켜 교회에서 전세계에 나가는 금식 헌금을 조사하게 하여, 3일 밤낮 동안 정 대판, 장 세천 형제 등을 시켜 등사를 하게 하고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가를 설명하였고, 이것이 시장을 감명시켜 인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사님이 그 인가 서류를 들고 나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인가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젊은이에게 산 교훈이 되었던 것은 가족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신 점입니다. 딸들을 늘 데리고 교회에 나오시고, 가족들과 친하시고 그 당시 6·25로 파괴되었던 사회, 가족 상황에서 미래의 가족상의 한 표본을 보여 주셨다는 점이 또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 원용: 서 형제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서 원: 저는 개인적으로 친히 접촉한 적은 없었고, 그냥 교회에서 뵈었고, 장례식 때는 운구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1956년 한국에서 봉사한 초기 선교사들(왼쪽부터 뒷줄 카 장로[후에 서울 선교부장], 파우엘 장로, 앤드루스 선교부장, 테튼 장로, 움 장로, 왼쪽 앞줄 킬벌 장로, 뉴민 장로, 우렛처 장로, 앤드슨 장로)

서 원 형제

1959년 5월 23일에 침례 받았으며 지방부 서기, 지방부 평의원,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녹번와드 감독을 거쳐 86년 3월에 서울 북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음. 부인 임 영옥 차매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고 있음.



“새해의 설계를 하신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 등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삼청동에 유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 원고 봉치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새해의 설계를 하신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 등이었습니다. 당시 건국대 축산 대학장을 하시던 시절이었는데, 학교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글을 쓰시면 교회에 관한 언급을 자주하셨는데, 그러한 책에 내려고 쓰시던 원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 원용: 김 차매님께서도,

김 정숙: 교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정에서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절대로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같은 꾸짖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님은 저희들에게 늘 칭찬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만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늘 용기를 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꼭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한 인상: 정말 꼭 한번입니까?(웃음)

김 정숙: 네, 정말 한번입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새 외투를 사 주셨는데, 그것을 입고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이 걸레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새 외투 안감을 찢어 걸레를 만들었어요. 그 날 집에 돌아와서 크게 한번 혼났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김 영숙: 저는 막내딸이었으니까 아버님과 아주 가까웠어요. 그리고 늘 아버님 손을 잡고 교회에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모두 공부할 수 있게끔 장학금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교회 및 지역 소식



김 정숙 자매
1953년 1월 3일에 침례받았으며 팔머 선교부장 당시 상호부조 회장단 제1보좌 및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 지부, 와드 상호부조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1981년 3월부터 서울 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하고 있음. 남편 정 선주 형제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음.



김 영숙 자매
1952년 8월 3일에 침례받았으며 상호향사회 교사,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 영동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 교사를 거쳐 현재 영동 와드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음. 남편 정 윤 형제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음.

“모든 사람은 각각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님은 참 애국자였습니다.”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수입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법이 없이 모두 장학금으로 지불하셨어요. 생활에는 전혀 보탬을 주지 않았읍니다.

고 원용 :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영숙 : 어머니께서 크게 사업을 하시니까 아버님께서서는 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셨죠. 집에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고 원용 : 그 외에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인상 : 박사님이 울지로 6가에서 어린 회원들과 함께 가두 전도를 하셨습니다. 중절모를 쓰고 길에서 판을 들고 전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박 재암 : 박사님은 교회에 오시면 늘 제일 앞 자리에 앉아서 경전을 봅니다. 그리고 경전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셨어요.

고 원용 : 이 기사가 실리게 되면 앞으로 와드/지부에서 회원들이 모두 앞 자리에 다투어 앉아 열심히 경전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박 재암 : 그리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이 늘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옛날 선비같은 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인상 :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찬 축복문은 박사님이 번역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떡의 축복문에 나오는 “BREAD”를 빵으로 번역하지 않고 왜 떡으로 했느냐고 질문하지만, 김 박사님이 그렇게 번역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 둔 것입니다.

고 원용 : 박사님이 평소 즐겨

“아버님이 문교부 차관으로 제실 때 일본말로 된 간판을 모두 우리말로 바꾸게 한 장본인이십니다.”

쓰셨던 단어들이 무엇이었나요? 아까 정 형제님이 “Sincerely”라는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 인상 : 그리고 특히 말년에는 “다 필요없다, 예수만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회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아, 김 박사님. 박사님은 나라의 재상도 지내시고,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다 가지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형편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분은 정말 그렇게 사셨고, 그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고 원용 : 박사님이 “예수께 오라”는 찬송가를 애창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 윤 : 그게 박사님의 애창곡이었죠.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찬송가만 불렀죠.

김 정숙 : 모든 사람은 각각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님은 참 애국자였습니다.

이 승만 대통령의 호출

박 재암 : 그것은 제가 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박사님은 교회 모임에서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최 현배 선생의 저서인 “나라 사랑의 길”을 소개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가 좋지만, 박사님이 좋다고 하셨을 때의 우리 나라는 정말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늘 나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1956년 12월 그의 두 딸과 장로들과 함께

교회 및 지역 소식

김 영숙 : 아버님이 문교부 차관으로 계실 때 일본말로 된 간판을 모두 우리말로 바꾸게 한 장본인이십니다.

김 정숙 : 또 아버님께서 글을 쓰실 때 늘 한글로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유식해 보이게 한문도 좀 넣으시죠.”라고 했으나 한문을 쓰지 않으셨어요.

김 영숙 : 이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만 아버님이 문교부 차관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승만 대통령이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주일날이었고, 교회에서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대통령 비서가 와서 대통령이 오라고 하신다고 하니, “오늘은 주일날이어서 모임이 다 끝난 후에 갈테니 기다리라.”고 해 놓고 공과를 계속하시는 동안 비서가 안전부절하며 기다렸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가서 뵈었죠.

박 재암 : 박사님이 비서와 함께 경무대에 가니 대통령이 약간 화가 나서, “왜 이렇게 늦었는고?” 하니, 박사님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왔습니다.” 하니 대통령이 안색을 누그러뜨리면서 “이리 오라.”고 하시며 등을 두드리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셨답니다.

김 영숙 : 이 이야기가 다른 기독교의 책자에도 실려서 화제가 되었죠.

고 원용 : 다른 교회에서 자기들이 이단시여기는 교회의 지도자의 훌륭한 모범을 각기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예로 삼았군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51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52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56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할 때까지, 소위 한국 교회의 선사 시대에 교회의 기초를 쌓는 데 큰 밑거름이 되셨고, 56년부터 59년까지 3년 동안 공식적인 출발을 한 한국 교회를 모세같은 위대한 지도력으로서 이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경우처럼 박사님에게서도 3년이라는 기간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군요. 박사님이 한참은 더 사셔야 했고, 그것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쉬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김 박사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준 충격,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큰 기둥이 빠진 공백을 메웠는지에 대하여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인상 : 어렸을 때 물 싸움 놀이를 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 싸움이란 아랫 개울과 윗 개울 둘로 나뉘어, 윗 개울에서 물을 막고 있고, 아랫 개울에서 물을 쌓아, 윗 개울에서 막은 물을 틈이 내려보내서 아랫 개울에서 쌓은 물을 무너뜨리면 윗 개울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쌓는 데 웬만한 흙으로는 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때를 떠다 놓아야 일단 물을 막고 흙을 덮어 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이런 때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분들이 많았지만, 당시 겨우 20여 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을 막고, 한국 말일성도라는 물을 쌓기에는 힘에 겨웠는데 그 역할을

고 원용 형제

1962년 3월 24일에 침례받았으며 서울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등을 거쳐 1979년 4월 18일에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아 봉사하다가 1985년 3월에 해임됨. 현재 서울 강서 스테이크 고등평의원이며 한국 지역 공보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음. 부인 김 은희 자매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음.



박사님이 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많이 감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이미 물결을 이겨낼 만큼 튼튼을 쌓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의 도움으로 재단 설립이 되었고, 교파로서 자리도 굳혔고, 이미 큰 것은 다 넘어 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어찌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김박사에게 의지했다.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꾸러갈 수 있다. 너무 게을렀다.”라고 꾸짖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고 원용 : 그후 3년이 지나 62년에 한국에 선교부가 조직되었죠. 지난 7월 2일에 있었던 서울 성전에서 있었던 인봉 의식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울 성전에서의 인봉

박 재암 : 그날 제가 통역을 하였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죠. 슬로버 성전장이 인봉 의식을 집행하였고, 최 옥환, 박 병규 장로가 증인으로 참석하고 그 외에 신권 지도자와 성전 봉사자들로 성전 제1인봉실이 가득 찼었습니다. 성전장이 박사님의 교회 역사를 연대별로 이야기하시고, 성약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인봉 의식이 베풀어졌는데, 박사님의 부모 즉 김 자매님의 조부모의 부부 인봉이 있었고, 김 박사 부부의 조부모에 대한 인봉이 있었으며, 그 다음 자녀들의 김 박사 부부에 대한 인봉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자매의 외할아버지 부부에 대한 인봉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 원용 : 그러니까 3대에 걸쳐 인봉 의식이 있었군요.

김 정숙 : 네, 그렇습니다.

박 재암 : 상당히 뜻이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고 원용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 인상 : 아까 이야기되었던 김 박사님의 장례식을 회고해보면 그때에는 몰랐지만 큰 전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때까지 다른 사회 집단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이 교회가 합동 사회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 찬송가가 불러져서 김 박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큰 전도

교회 및 지역 소식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적인 무대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케 해준 것입니다.

박 재암 : 하나님께서 한국에 회복된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하여 박사님을 특별히 이 세상에 보냈음을 느낍니다. 미국에서의 침례, 자매님의 내조, 훌륭한 모범, 애국 정신을 강조하신 여러 사실을 볼 때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인상 : 저는 앞으로 김 박사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선교부장으로, 지역 대표로 봉사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큰 나무가 있을 때 어떻게 씨가 뿌려졌고, 어떻게 뿌리를 내려졌는지를 안다면 그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더 느끼듯이 한국의 말일성도들이 김 박사님을 좀더 이해한다면 그 분의 신앙의 자세를 더욱 본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 원용 :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 교회 안에 계셨고, 훌륭한 김 박사님의 뜻과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기사를 읽는 성도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이나 간증은 개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이 정리해야겠지만 이러한 훌륭한 행적과 모범을 보여 주신 분, 그리고 그러한 훌륭함을 전해 주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성도의 벼를 통하여 좀더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갖기로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들 중에서 김 박사님에 관하여 더 보충하실 내용이 있다면 혹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도의 벼사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의 교회 역사에 참고 되는 기사나 이야기의 제공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교회의 사명”이란 “교회 모든 회원의 사명”

야콥 디 야가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1987년 4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교회의 연차 대회는 거기서 발표된 말씀으로 인해 역사적인 대회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회원들은 지금부터 육 년 전인, 198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이 말씀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새로운 목표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사명”이란 “교회의 모든 회원의 사명”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1.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2.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회원들을 강화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3. 주님의 집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구속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신권 협의에 관해 말해 왔는데 신권 협의란 모든 교회 활동 및 교회 보조 조직은 신권과 상호 연관되며 또한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 과정은 경전(교회의 네 가지 표준 경전)에 연관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친 이 모든 협의는 참으로 모든 것을 회원들의 생활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이 대회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은 복음의 거룩한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침례 성약과 확인 성약만이 아니라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가족 인봉과 같은 주님의 집에서 성약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의식의 거룩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생활에 질서가 잡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집행하고 더 높은 성약을 맺는다면, 우리가 여기 이 지상의 삶에서 잃게 될 수도 있는 다른 것들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에 시달리며 많은 것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다 해도 우리가 의식과 성약을 받고 그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진실되게 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스러운 것으로 우리 인생 향로에 닿을 내리게 하지 않는다면, 이 지상 생활에서 어떠한 것을 얻는다 해도 영원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동경, 한국의 서울, 대만의 타이페이, 필리핀의 마닐라의 네 곳에 성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시간에 걸쳐 기꺼이 큰 희생을 치르려 하는 많은 회원들이 주님의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을 통해 축복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역사적인 4월 대회의 주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교성 20 : 59)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우리의 일상 생활과 가정에서 수행할 것에 대하여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제언해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완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